

## 협회뉴스 강북지회, 월례회의 개최



강북지회(지회장 송용곤)는 지난 12일 서울시 강북구 번동 소재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박기준 중앙회장, 강북구청 후원기 건설과장, 이우준 팀장, 등과 회원 및 협력업체(귀뚜라미 대리점)가 참석한 가운데 강북지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용곤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수도권 지역 홍수로 교통 대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중앙회장님과 비가 많이 와서 비상시국임에도 참석하여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팀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그동안 유명무실해 있던 강북지회가 지회장과 지회 임원들의 리더십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강북지역의 대표지회가 되고 있는 것에 중앙회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며 “협회가 도약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회원들이 하나가 돼 회원에게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서울지역 조

직 일제 점검을 실시해 부실지부(지회)장에 책임을 물을것에 대해 시사했다. 이어서 중앙회장은 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원들의 협회의 대한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했다.

강북구청 건설관리 후원기과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서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서 난방을 책임져 주는 협회회원들에게 구에서도 난방 시공업에 행정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 지회장은 간부세미나, 중앙 집행위원회 및 서울지역 조직점검에 대해서 보고하고 진현귀 총무는 부산에서 개최한 전국 체육대회 결산보고를 회원들에게 발표했다.

한편, 강북지회는 단합을 도모 하기위해 8월 12일 단합대회를 갖기로 의결하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